

유배일기에 기록된 가족 사별(死別)과 유배객의 심적 상태

—〈적소일기〉와 〈신도일록〉을 중심으로*

조수미**

〈차 례〉

1. 서론
2. 유배일기에 나타난 가족 사별의 정황
 - 1) 〈적소일기〉에 나타난 가족 사별의 정황
 - 2) 〈신도일록〉에 나타난 가족 사별의 정황
3. 사별 정황에서 두드러지는 유배객의 심적 상태
 - 1) 가족의 죽음에 대한 자책(自責)
 - 2) 상장례에 참여하지 못한 여한(餘恨)
4. 결론

〈국문초록〉

유배라는 형벌을 이해할 때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그 형벌이 살던 곳에서의 추방, 가족과의 격리 등을 동반하는 일상의 파괴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유배가 가진 징벌적 성격은 가족 구성원을 강제로 이산(離散)시킴으로써 유배객과 그 가족들에게 가하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도 그 중요한 본질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약행의 유배일기 〈적소일기〉와 이세보의 유배일기 〈신도일록〉을 대상으로 하여 일기에 나타난 가족 이산, 특히 사별(死別)의 정황과 그 기록 속에 드러나는 유배객의 심적 상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배일기에는 대체적으로 유배객이 부고장을 받는 것으로 가족과의 사별에 대한 서술이 시작된다. 평상시와 같았다면 오히려 부고장을 다른 이들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입장의 유배객들이, 오히려 뒤늦은 부고를 통해 가족의 죽음을 접하게 되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4A01021248).

** 부산대학교 강사

는 것이다. 이어지는 상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른 이를 통해 전해 듣고, 유배객 본인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서술 속에서 발견되는 유배객들의 두드러진 심적 상태는 자책(自責)과 여한(餘恨)이라는 말로 요약이 가능하다. 가족의 죽음에 자신의 유배가 직·간접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은 자책으로 이어지고, 장례 절차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유배객으로서의 처지는 되돌릴 수 없는 여한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배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일대 사건 앞에서 그 징벌적 특성이 부각된다. 가장 가까운 이를 절망과 기다림 속에서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고, 영원한 이별 앞에서도 방관자로 머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견 매우 가혹한 형벌이었던 것이다.

□ 유배일기, 가족과의 사별(死別), <적소일기>, <신도일록>, 자책, 여한(餘恨)

1. 서론

본고는 유배일기에 기록된 가족 사별(死別)의 정황과 그 서술 속에 녹아 있는 유배객의 심적 상태의 특징을 살핀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유배의 실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909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조선의 양반들에게 유배는 비교적 흔한 형벌이었다.¹⁾ 특히 사회나 당쟁과 같은 극렬한 정치적 갈등의 상황에서 유배는 정적을 제거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유배는 특히 양반에게 한정된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고²⁾, 이를 기록한 유배일기는

1) 최인주, 「조선시대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4쪽.

2) 유배형은 양반에게만 내려진 형벌은 아니다. 그런데 유배형이 양반 사대부들의 정치적 추방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유배의 실상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그들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배형에 처해 진 수많은 중인 이하 신분의 유배인들은 그들의 유배 관련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양반 유배인들은 적극적으로

정적에 대한 분노, 정치적 소명(疏明) 등의 발언들로 점철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배일기에는 그런 예상과는 달리 정치적 발언이 많지 않다. 그보다는 유배행로의 어려움, 유배지 생활의 고단함, 해배(解配)에 대한 절망적 기다림 등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헤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 시대에 유배형의 하나로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는 것이 있었다. 가족이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는 일종의 가족연좌형 유배형이다.³⁾ 옮겨 살게 하는 지역이 척박한 변방 지역이라는 점이 이 형벌의 핵심일 수 있으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다는 것 자체가 형벌에 해당되는 가혹한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가사변뿐만 아니라 유배형은 대체로 유배객이 가족과 동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원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유배지로 생활기반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유배객들은 유배지에서 홀로 생활하였다. 가족과의 동반이 허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은 유배객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전가사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그 시대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배객들은 홀로 혹은 아들이나 손자, 하인 가운데 한두 명만 대동하고 유배지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남은 가족들이 유배객을 만나러 유배지를 다니러 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궁벽한 곳에 있는 유배지를 다녀가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으므로 자주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

결국, 유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배객은 흔치 않았으므로 유배일기에 정치적 푸념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더 자주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유배라는 형벌을 이해할 때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그 형벌이 살던 곳에

로 자신의 유배와 관련된 일들을 일기나 회고록 등의 기록으로, 혹은 시조나 한시 등의 작품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유배형을 양반에게만 내려진 형벌로 오해하기 쉽다.

3) 지철호, 「조선전기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4, 35~37쪽.

서의 추방, 가족과의 격리 등을 동반하는 일상의 파괴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지만, 유배일기를 ‘가족 이산(離散)’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이유는 분명하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배일기를 가족 이산의 측면에 주목하여 살핀 연구는 드물다. ‘유배지에 대한 인문지리적 정보의 제공’, ‘유배형의 실상 및 유배인의 생활 고증’, ‘조선 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사료’, ‘특정 사건에 대한 방증 자료’ 등으로 유배일기를 분석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배일기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유형(流刑)에 대한 법제사적 연구는 1990년대에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⁴⁾, 이후의 작업은 문학 작품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법률제도상의 유배형이 실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유배일기가 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본고는 유배의 중요한 징벌적 본질 가운데 하나가 가족 이산(離散)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김약행의 유배일기 〈적소일기〉와 이세보의 유배일기 〈신도일록〉을 대상으로 하여 일기에 나타난 가족 이산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이산의 가장 처절한 국면은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사별의 장면에서 펼쳐진다. 사별은 잠정적인 이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해 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유배일기 가운데 〈적소일기〉에는 아내, 동생과의 사별이, 〈신도일록〉에는 아버지와의 사별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⁵⁾ 〈적소일기〉와 〈신도일록〉은 2000년대 초반 일기 연구가 활발해지던 시기와 때를 맞추어 연구되기 시작하여 그간 다양한 연구

4) 지철호(1984), 위의 논문, 1~132쪽; 최인주(1992), 앞의 논문, 1~70쪽; 한창덕, 「조선시대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7, 1~157쪽 등.

5) 두 작품은 한글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다. 중세 텍스트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문으로 전하는 텍스트와 체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이 두 작품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한문으로 전하는 유배일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성고가 발표되었다.⁶⁾ 그러나 가족 사별에 초점을 맞춰 유배의 징벌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배일기는 40여 편에 달한다.⁷⁾ 그 가운데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것은 열 편이 채 되지 않는데, <적소일기>와 <신도일록>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 유배일기 가운데 가족 사별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적소일기>와 <신도일록> 뿐이다. 이 두 작품만으로 유배일기에 기록된 가족 사별의 정황과 유배객의 심적 상태에 대해 고찰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논의의 결과는 한문 유배일기에 나타난 가족 사별의 정황을 살피는데도 분명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유배일기에 나타난 가족 사별의 정황

1) <적소일기>에 나타난 가족 사별의 정황

(1) 아내와의 사별

선화자 김약행(仙華子 金若行, 1718~1788)은 다소 늦은 나이인 50세에 알성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유배생활을 시작하여 세 차례에 걸쳐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1768년(영

6) <적소일기>는 2003년에 처음 해제적 연구가 소개된 이후, 점차 이 일기를 하나의 서사체로 본 본격적 연구로 이어졌다. <적소일기>를 통해 진도의 지역사를 살핀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신도일록>은 주로 이세보의 유배시조와 함께 연구되었다. 이세보의 유배시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도일록>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세보의 작품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7) 유배일기 전체 작품수에 대한 입장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다. 중세의 일기는 현대의 일기와는 다른 점이 많아서 어떤 작품을 유배일기에 포함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기가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배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작품수를 확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조44)에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로 유배되었고, 1776년(정조 즉위년)에는 공물을 사사로이 썼다는 죄명으로 직산현에 유배되었다. 마지막으로 1781년(정조5)에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간 죄’로 유배되었다가 곧이어 역도에 연루되어 진도로 이배(移配)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⁸⁾

〈적소일기〉는 김약행이 마지막 유배지인 금갑도에 머물 때의 유배일기이다. 김약행은 이곳에서 1788년 1월 18일에 사망하기까지 약 8년의 유배 생활을 하였다.⁹⁾

동지달 초승에 남포 종 삼봉이가 내려와 짐을 내려놓고 뵈거늘 집안 안부를 물으니 삼봉이 대답하기를 “평안하시면 소인이 내려왔겠습니까?” 하였다.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편지를 바빠 내라 하니 편지를 내며 “마님 상사(喪事)가 나서 왔습니다.” 하였다. 편지를 보니 상사가 10월 12일에 났다 하고 남포 두 아이는 분곡(奔哭)하여 상복 입고 초종범백(初終凡百)은 수교(首校) 이대장의 힘으로 하고 집이 좁아 안방 위쪽에 빈소를 차리고 장사(葬事)는 선산에 여축에는 쓸 곳이 없어 백련산 아래 정토절 근처에 새로 터를 잡아 지내노라 하였으니¹⁰⁾

위 일기는 김약행이 아내의 부고를 전해 들은 날의 일기이다. 이때는 유

8) 김약행의 유배 이력에 대해서는 이승복, 「〈적소일기〉의 문학적 성격과 가치」,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92~100쪽을 참조하였다.

9) 일기의 말미에 ‘팔년(8년) 적객이 만단으로 비감한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금갑적거록을 지어(팔년적객의만단비감회포를이기지못하야금갑적거록을지어)’라고 되어 있다.

10) 디월초승의남포종삼봉이가느려와짐을내려와노코뵈거늘집안평부를문져무르니삼봉이디답호디평안호시면쇼인이느려왔소오리잇가호거늘무슨일이난줄알고편디밧비내라호니편디틀내며마노라남상스나셔오시다 호니편디틀보매상스가십월십이일나다호고남포두아히논분곡호야성복후드러오고초종범백은수교니대당힘으로호고집이좁기안방우호로기빈을호고장스노고향선산여축의논빨디업스므로강의셔십여니호디빅년산아래덩토절근처의신복호야납월노디내노라호여시니.〈적소일기〉(73-30) * 현대어역과 원문해독은 ‘김희동, 『다시 돌아본 선화자 김약행의 꿈』, 목민, 2014’를 참고하여 독해에 용이하도록 윤문하였고, 원문은 동일저서에 영인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후 〈적소일기〉는 작품명을 생략하고 주석의 〈 〉안에 원문의 페이지만 표시한다.

배 생활도 이미 여러 해를 넘기고 있었고 두 번의 연이은 사면에서도 제외되어 유배지 사람들의 노골적인 구박이 더해지던 때였다. 성실하게 점고(點考)에도 응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내고자 하는데도 가난한 보수주인들은 수시로 바뀌어 먹고 지내는 일이 수월치 않았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부고가 닥친 것이다.

‘집안이 평안하면 제가 내려왔겠습니까’라는 불길한 하인의 말로 장면은 시작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김약행이 서둘러 편지를 펼쳐보니 아내의 부고였다. 부인은 남편인 김약행이 곁에 없는 사이에 마지막을 맞았다. 장례 절차는 사위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고, 집이 좁아 빈소를 차릴 곳도 여의치 않았으며, 장지도 마땅치 않았다 한다.

오십여 년을 해로하다가 이리 떠나와 죽음으로 영영 이별할 줄 어찌 알았으며 집이 가난하여 일생 함께 고생하여도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고 늦게야 과거를 하였으나 벼슬이 끊기지 않으면 한때 근심을 잊을까 하였더니 내 남과 같이 세상살이를 잘하지 못하여 자주 귀양을 다니기에 집이 곤란하여 가세가 능히 병든 이를 구완하지 못하니 자식들의 남은 한이 끝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며 거문고 줄이 한 번 끊어짐에 다시 잇기 어렵고 부인의 현명하고 지혜로움을 생각하여도 만나볼 길이 없으니 만사 속절없고 장사(葬事)에도 가 볼 길이 없어 두어 줄 제문을 지어 영연(靈筵) 앞에 읽으라 한들 글이 족히 슬픔을 다 펴지 못하고 늙고 외로운 지아비의 슬프고 괴로운 것을 영혼이 앓이 있게 되면 필연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¹¹⁾

11) 오십여년을히로 호다가이리떠나와천고영결이될줄었다이라시며죽이가난호기일성동고호여기한을면치못호고늦게야과거를 호야시나벼슬이차타치아니면호때근심을니줄가호였더니내능과긋치설세를잘호디못호야 조로귀향던니기로집이확낙호야산업이능히병드니를구완치못호고자식들의유혼이무궁호니엇디슬푸디아니호며거문고줄이호번낫디매다시닛기어렵고부덕의현명민혜호물심각호야도만나볼길히업스니만시속절이 업고장소의도감볼길히업서두어줄제문을디어영연앞에읽으라호들글이족히슬프물다펴디못호고늙은환부의 우우비창호거슬녕혼이아름이이게되면필연명명듯는기미이실듯호더라. <73-30>

김약행은 부인의 죽음이 자신이 너무 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도 늦게 시작하였고 게다가 처세에 능하지 못해 계속 귀양살이하는 바람에 가산이 넉넉지 못한 탓이라고 자책한다. 가장인 자신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부인의 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허망하게 이렇게 보내게 되니 자식들에게도 한이 남을 것이라 하였다. 김약행은 50년이나 해로한 아내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주지도 못하고, 평생을 가난과 잦은 가장의 부재를 견디며 살게 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책하고 괴로워한들 유배지에 매여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제문을 지어 망자를 애도할 뿐이다. 말로 다 못하는 슬픔을 부인의 영혼은 알아주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삼봉에게 즉시 답장을 써 보내고 성복(成服)을 하려 하되 베를 살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옛말에 지극히 슬픈 일에는 화려한 꾸밈이 없다 하였으니 애통한 마음이 어찌 성복하고 하지 않음에 경중이 있으리오. 하여 성복을 하지 못하나 슬프고 비통함을 금치 못하여 주인(보수주인)의 집에서 울려 하면 말리고 민망히 여기고 해변이나 산중이나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울어 슬픔을 펴나 망자는 하릴없고 생자는 슬프고 괴로움을 견디어 무심한 세월을 보내는구나.¹²⁾

본가의 사정이 빈소와 장지도 마땅치 않은 지경이라면 유배지에 머물고 있는 김약행의 처지는 더 곤궁한 것이 당연지사다. 부인의 상에 상복도 차려 입을 수 없는 가난한 처지인 김약행은 망자를 애달파하는 마음은 성복을 하고 하지 않고와는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이런 자위가

12) 삼봉을즉시답장짜보내고성복을하러하되베를살갑시업술뿐아니라넛말의지극히슬픈
 디는문치업다하여시니이통하는마음이엇디성복하며아니매경중이이시리오하여성복
 을일우디못하나비회를금치못하여주인의집에서울려하면말리고민망히네이고희번의
 나산통의나사름업스곳의가서우러슬푸물펴나망자는홀일이업고심자는비고를견디어
 무심흔세월을보낼너라.〈73-30〉

오히려 그가 처한 비극과 초라한 형편을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비록 성복도 하지 못했지만 슬픔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무시로 터트리는 울음을 걱정해 주었을 테지만, 결국 김약행은 주변 사람들의 눈이 어려워 사람 없는 바닷가, 산 중에서 통곡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슬퍼한들 산 사람은 그저 목숨을 계속 이어 가며 무심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였다.

유배지에서 맞는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렇듯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전해 듣는 일일 것이다. 사별의 슬픔만이 아니라, 마지막을 곁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 가족들의 죽음에 자신의 유배로 인한 부재가 큰 몫을 차지하리라는 뼈아픈 자책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2) 동생과의 사별

김약행은 아내뿐만 아니라 동생의 죽음까지 유배지에서 보게 되었다.

동생이 사람을 강진으로 보내라 하더라 하여 연흥을 보내었더니 돌아왔으되 즉시 편지를 내지 아니하거늘 내라 하니 동생이 편지를 아니하고 계금모(母)가 부고를 알리는 편지를 내어 주어 읽으니 동생이 십오일 상사(喪事)가 나되 감환으로 신음하다가 약도 잘 못 쓰고 의술을 이는 이 있어 구병(救病)할 이 없어 객지에서 종신(終身)하고 송정 기별하여 약간 수의를 갖추고 앓은 날편지에 입 관하여 성 밖에 초빈하였노라 하였으니 이 기별을 들으며 가슴이 에이는 듯하고 설움밖에 할 말이 없으니 일마다 한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¹³⁾

13) 등시가사람을강진으로보내라하더라하매연흥을내어보내었더니노라와시되진시편디
를내디아니하거늘내라하니동생이편지를아니하고계금모의통부하는고목을드리니동시십
오일상스가나되감환으로신음하다가약도 잘못쓰고의리아는이이셔구병하리업기극디
의종신하고송정기별하야약간습념의복을초고박관의입관하여 성밖초빈하얏노라
하야시니이기별을드르매심담이어히는듯하고설움밖기훗말이업스니일마다무비유하
이오. <73-34>

어느 날 강진 읍내에서 지내고 있던 동생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동생에게서 편지가 오리라 기대하고 있었던 김약행은 동생의 집에 다녀온 연홍(보수주인의 아들)의 손에 들려온 동생의 부고를 받게 된다. 동생이 감환(感患)으로 신음하였으나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의술을 이는 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객지에서 종신(終身)’했고, 제대로 된 염습도 못 하고 초빈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본가에서 상 치를 준비를 해서 내려와서 다시 본가로 시신을 옮겨 제대로 된 매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일종의 가매장인 초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동생의 부고를 받은 김약행은 ‘가슴을 칼에 베이는 듯’하고 ‘설움밖에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내 이곳에 있어 바다를 넘어 가 보지 못하고 조카들도 상사(喪事)를 서로 의논하였는가 하여 밖으로 지휘하나 들어보지 못하고 제금毋만 있어 비록 조석상식(朝夕上食)을 하노라 하나 초빈(草殮)을 성 밖 인적 없는 곳에 하여 주인 없는 외로운 혼이 의탁할 데 없음을 생각하매 길 가는 사람도 처량하여 눈물을 흘리거든 하물며 동기(同氣)지간에 이런 기별을 들으매 어찌 홀로 살고 싶으리오 마는 어쩔 도리 없이 애통을 참고 견디려 하니 인정이 끊어져 하늘을 우러러 말씀 풀어 고하지 못하고 가슴을 어루만져 터질 듯하더라.¹⁴⁾

예상대로 동생의 가는 길은 초라하고 쓸쓸했다. 유배지에 매인 몸이라 동생의 집을 찾아갈 수도 없는데, 동생을 성 밖의 인적 드문 곳에 초빈하였

14) 내이곳의이셔바다홀넘어가보디못호고싱덜들도상시섭의호여난가호야뵈그로지휘호나드러보디못호고계금모만이셔비록조석상식을호노라호나초빈을성밖인적업는곳의호고쥬인업슨외로운혼이의탁홀디업스물싱각호매길가는사릅도쥬연호야눈물을느리오려든호물며동기디간의이런기별을드르매엇디홀로살고시브리오마는홀일업슨곳의인통을쥬고견디려호니인정이스흔허더하늘을우러러말씀을베피고호디못호고가슴을어루만져터덜듯호더라.(73-34)

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형제간에 이런 소식을 듣고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견디고 있으려니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내 이리 있어 형이라고 사람도 보내어 묻지 않으면 아우 고혼(孤魂)이 어찌 슬퍼하지 않으리오. 사람을 보내고져 하되 연흥은 무식하여 제문을 주어도 능히 가서 내 설움을 펴지 못할 것임에 죽림 사는 김이대가 친하고 내 뜻을 알므로 가서 보고 술잔이나 부어놓고 제문을 읽어 내 대신에 다녀오라 하니 그리하마 하거늘 제물과 김생의 양자(糧資)를 차려줄 길이 없어 내 차던 장도칼을 팔아 돈냥을 받아 김이대를 주어 강진 보내었더니 돌아와 이르되 강진 가 보니 계급 어미가 능히 영연(靈筵)을 배설하고 조식으로 상식(上食)하더라고 가져간 돈에 술을 사고 상식을 차려 지내고 제문은 영연 앞에 읽고 초빈한 데는 가지 아니하고 멀찍이서 바라보고 오니 경상이 처량하고 상인(喪人)은 못 미쳐 왔고 계급 모가 영연을 지키어 딸 데리고 있으되 보기가 불쌍 참혹함을 대강 전하니 비록 친히 가지 못하나 외로운 혼이 반기면 위로함이 있을런가 더욱 애회(哀懷)를 그치기 어렵더라.¹⁵⁾

김약행은 유배지에 매인 몸이라 다른 사람을 대신 동생의 집으로 보냈다. 자신을 대신해 제문을 읽어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여비를 마련해 주기

15) 근천니분곡홀일을싱각호면참혹호경경과괴구업시느려오는거동을츠마싱각디못홀너라내이리이서형이라고사름도보노여뭇디아니면아이고혼이엇디창연이녁이디아니호리오사름을보내고더호디연흥은무식호여제문을호여도능히가서내설우를퍼디못홀거시매죽림김이대가친호야드니고내뜻을알매가서보고술잔이나부어노코제문을읽어내대신의돈너오라호니그리호마호거늘제물과김생의양자를출혀줄길히업서내츄던장도칼홀뜨라돈냥을바다김이대를주어강진보내엇더니도라와니르디강진가보니계급어미가능히영연을배설호고조식으로상식호더라고가져간돈의술을사고상식을출혀디고제문은영연앞에읽고초빈호디는가디아니코멀찍이서바라보고오니경상이처량호고상인은못미쳐왔고계급모가영연을데희여홀드리고이시디소견이불쌍참혹호물대강던호니비록친히가디못호나외로운혼이반기며위로호미이실년가더욱인회를덜기어렵더라. (73-34)

위해 몸에 지니고 있던 장도칼을 내어 팔기까지 했다. 김약행을 대신해 상가를 다녀온 김이대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준비해 간 돈으로 술을 사고 빈소에서 제문을 읽어주긴 하였으나, 초빈 한 데까지는 가지 않고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 아직 본가에서 상주가 내려오지 못한 상황인지라 제금모¹⁶⁾가 딸만 데리고 초라하게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불쌍하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제문을 읽게 하는 것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유배로 몸이 매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초빈하였던 관을 정곡 촌가로 행상(行喪)하여 빈소를 차리고 상인(喪人)이 거기서 빈소를 지키고 강진 집은 팔고 제금母도 따라가고 양식과 제사는 송정서 주변하여 이으니 늘 동가지정의 비통을 이기지 못하여 장사를 지내는 내내 그립고 생각나 잊지 못하니 어디다 이를 것이오. 형이 있다 하여도 해도(海島) 중 깊어 앓아 아는 체를 못하니 남이나 다르지 아니하니 어찌 슬프고 부끄럽지 아니하리오¹⁷⁾

이제 동생과는 영영 이별이 되어 버렸다. 본가에서 내려온 조카가 관을 모시고 돌아가 상을 마무리하였다. 강진에서 동생이 지내던 집도 팔고 제금모도 본가로 따라갔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형인 김약행은 남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 모든 장례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김약행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끊이지 않았으나 유배지에 매인 몸이라 아무것도 할

16) 제금 어머니는 딸과 함께 동생 목행의 빈소를 지키고, 상이 끝난 뒤 본가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 목행의 소실인 듯하다.

17) 송정편디의죽혀느려와초빈호옛던관을정곡촌가로행상호여빈소를호고상인이게서슈상호고강진집은팔고 제금모도싸라가고양식과제던은송정서주변호여니우니미시동기디정의비통을이거디못호야초물간여일히 권년호고넋디못호니어디다니를거시오형이 있다호여도히도동김피안자알은체를못호야노인이나다르디아니호니어디드슬프고부끄럽디아니호리오. <73-38>

수 없으니 남과 다르지 않다고 슬퍼하였다. 상사가 한참 지난 후 아들과 조카가 찾아 왔을 때에야 김약행은 비로소 제대로 통곡을 토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김약행은 유배지에서 부인과 동생의 죽음을 겪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죽음에는 자신의 유배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자책을 하면서 말이다. 부인은 가장의 부재를 힘겹게 견뎌야 했고, 동생은 형의 해배를 기다리며 낯선 곳에서의 생활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¹⁸⁾

2) 〈신도일록〉에 나타난 가족 사별의 정황

〈신도일록〉은 경평군 이세보(慶平君 李世輔, 1832~1895)의 유배일기이다. 이세보는 선조대왕의 3남인 의안군(義安君)의 9대손이다. 20세가 되던 1851년에 풍계군(豐溪君) 당(唐)의 후사가 되고 경평군의 작호를 받았다. 연이어 정2품에 해당되는 오위도총부 부총관, 승헌대부, 승헌대부의 직을 맡았고, 곧 정1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¹⁹⁾

유능한 종친이었던 이세보는 안동김씨 세도가들의 견제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에 따른 폐해를 직언하다가 화를 입어 1860년에 신지도로 위리안치되었다가 1863년에 해배되었는데, 〈신도일록〉은 바로 이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정월 13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천지간에 이런 원억지통(冤抑之痛)이 또 어디 있으리오 인하여 비린 피를 폭주하고 혼절하니 온 사람이 구호하여 반일 후에 회복하니 모질다 질긴 목숨이 죽기도 어렵구나. 전말을 들으니 순창에서 오신 후에 홀연히 축일학(逐日瘡)이 백약이 무효하시고, 불초한 자식으로 인하여 크게 놀라고 상심하셔서 수십일 앓으시다가 마침내 다

18) 이에 대해서는 본고 '3.1'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19) 이세보의 이력은 진동혁,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논문집』 15, 단국대학교, 1981, 10~11쪽.

음달 23일에 돌아가시니 즉시 연락하지 못한 이유는 내 병이 더할까 염려하여
이제야 소식을 전한다 하니 천리(天理)도 이러하며 인도(人道)도 이러한가. 가
슴을 두드리고 길게 통곡하니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였다.²⁰⁾

위 장면은 유배지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된 충격을 서술한 부분이다.
부고를 전해 들은 이세보는 너무 놀란 나머지 혼절하였다가 겨우 깨어났다.
아버지는 유배길에 오른 아들 이세보를 정읍에서 상봉하고, 임지(任地)인
순창에서 집으로 돌아와 갑자기 학질에 걸리셨는데 백약이 무효하였다 한
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불초한 자식으로 인하여 상심’하여 앓으시다
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집에서는 아버지의 부고로 이세보가 놀
라 몸이 상할까 하여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세보는 이 모든 전말
을 전해 들은 뒤 ‘가슴을 두드리고 길게 통곡하니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다.’
고 통탄하였다.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크게 꾸짖어 말씀하시되 너 어렸을 때부터 충
효 두 글자로 가르쳐 평생을 잊지 말라 하였더니 뜻 아닌 오늘날 임금님께서
지극히 대해주신 은혜를 감히 잊고 부모의 크게 기대하는 정을 생각지 아니하
여 조정의 미움을 보고 가문에 부끄러움을 끼치니 어찌 불충하며 불효한 죄를
면하리오. 추기(麤氣)를 삼가지 아니하여 재앙이 닥치니 또한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하리오. 나도 이에 늙기에 이르렀는지라 구차히 살기를 구하는 것이

20) 정월십삼일의이르러가진위세호신전부가이르니턴지간의이갓튼원역지통이쏘어디잇
쓰리요인호여비린피를폭주호고드디여혼절호니온스롬이구호호여반일후의회소호니
모질다완명이여죽게도어렵소다던말를상탐호니순창서호신후의호련헌축일학이빅약
이무효호시고불초헌조식으로인년하여경혼상담호서수십일위돈호시다가맛참너남월
이십삼일의이르러호세호시니즉시통부를못한바는니병이더덜칠가염너호여이제야비
로소 전부한다호니턴니도이러호며인도도이러한가반벽장통의오니가불널이라. <신도
일록> 1월 13일. * <신도일록>은 한글필사본으로 전해지는데, 내용 이해를 위해 한자
를 병기하였다. 원문은 『이세보시조집』(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5)에 영인된 자료
를 이용하였다.

도리어 죽어 알지 못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시고 실성통곡하시니 안팎이 다 어찌할 겨를도 없이 급박하여 문득 초상난 집 같으니 어찌 차마 얼굴을 들며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리오.²¹⁾

아버지 단화(端和)는 이세보가 유배될 당시 순창군수의 직을 맡고 있었다. 이세보가 유배길에 막 올라 마침 백부가 있는 정읍에 도착하였을 때 근처 순창에 계시던 아버지가 찾아와 상봉한 일이 있었다. 이때 아버지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충효 두 글자를 평생 잊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불충하고 불효하는 죄를 지었다.’고 크게 책망하셨다. 그리고 ‘차라리 죽어서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통곡하시니 마치 초상난 집 같았다 한다.

이세보의 유배로 인해 아버지는 결국 연좌되어 퇴임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확인한 바이다. 결국, 잠시 머물며 병든 몸을 치료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정읍에서의 그날들이 이세보가 생전에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들이 되고야 말았다. 궁벽한 유배지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충격과 고통에 대해 이세보는 일기에 거듭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람의 자식이 되어 생전에 봉양을 못하였으니 끝이 없는 한이 죽은들 어찌 잊으며 병환이 극심하시되 약을 맛보아 한 번도 권하지 못하고, 상사에 임하매 또 능히 승안(承顏)하여 영결(永訣)치 못하고 망망한 바다섬 가운데 이 무슨 정경이며, 초종(初終) 엄빈지절(殮殯之節)을 비록 집에 있어 정성을 다하여도 오히려 여한이 있건만 몸이 천애(天涯)에 있어서 천고(千古)에 없는 정경을 당

21) 가친이ନ손을잡으시고더칙혀가로스디너어렸쓸씨로부터충효두글쓰로써가르쳐혀여금평생을잊지말나 혀혀찌니뜻아닌오늘날성상의지우혀신은혜을감히잇고부모의옹망혀는경을싱각지아니혀여도정의미음을 보고가문의붓그러움을찌치니엇지불충혀며 불효한피를면혀리요추기를삼가지아니혀여화익이당전혀니또한 누구를원망혀며누구를허물혀리요나도이에늘기의이르렀는지라구츠이슬기틀구혀는거시도료여죽어아지 못혀는이만갓지못혀다하시고실성통곡혀시니안팎기다창황혀여문득초상난집갓혀니 엇지참아얼골을들며 무삼말삼으로디답혀리요.〈신도일록〉 1861년 1월 13일.

하고 또 자식의 연고로 정신이 어지럽혀지고 막혀서 위세(違世)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 같은 불효는 부자지간에 어찌 용납하시오 비록 천은을 입어 살아 돌아간들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서 사람을 대하리오²²⁾

이세보는 아버지 곁에서 병구완도 해드리지 못하고 임종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성껏 영결하지도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의 빌미가 된 병이 자신의 유배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비록 해배되어 살아 돌아간들, 자신의 탓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세상을 대하기 부끄럽다는 표현은 가감 없는 그의 진심일 것이다.

집 뒤에 토감(土坎)하고 완장(完葬)도 못하였다 하니 듣는 정리에 우극망조(尤極罔措)하고 선친이 임종시에 정신이 흐릿하시나 집사람에게 자주 물으시길 큰아이가 해배되었느냐 나 죽은 후에 묻힐 땅은 반드시 큰 아이 오기를 기다려 정하고 장사 지내는 날 내 관이나 보게하여 저로 하여금 한이나 덜 되게 하라고 하신 까닭에 아직 내 해배하기를 기다려 영평(永甯)하려고 토감(土坎)만 하였다 하니 이같은 참혹한 정경은 전에 없는 일이다. 이미 장사지일에 영별(永別)을 못하고 해가 바뀌고 봄이 또 오도록 신주 앞에서 일곡도 못하니 비록 무심한 지나는 사람이라도 닐 아니 불쌍하고 참혹하다 하리오. 마땅히 죽을 만도 하되 죽지도 아니하고 한 목숨이 구차히 살아 시서(時序)가 변역(變易)하는 것을 보니 죄 위에 죄를 더하고 병 위에 병을 더하여 만 가지로 용납하여 지탱할 도리가 없도다.²³⁾

22) 스릅의조식되여성전의동양을못흐엿쓰니무궁한지한이죽은들엇지이즈며병환이극히시되약을맞보와환변도권히지못흐고상스를임히미뜨능히승안하여영결치못흐고망망현히도중의이무슨정경이며초동엽빈지절을 비록집의잇서서정성을다하여도오히려어한이잇쓰려든몸이턴의잇서서천고의업는정경을당흐고또조식의 연고로써원감이결식하여위세지경의이르렀쓰니날갯흔불효는부지지간의엇지용납하리오다른날의비록턴은을힘입어서고토의성환한들무슨면목으로세상의서서스릅을더하리오.<신도일록> 1861년 1월 13일.

아버지는 임종까지 아들 이세보의 해배를 기다렸다. 그러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자 자신이 묻힐 곳을 아들이 정하고 관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감만 하도록 하였다. 토감은 뱃자리를 쓰기 전에 시신을 흙으로 임시로 덮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세보의 아버지는 아들인 이세보가 자신의 죽음으로 얼마나 상심하게 될 것인지, 아버지의 관이나마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인지를 염려하여 아들을 기다려 완장하기를 당부한 것이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고통이 아무리 큰들 유배지에 몸이 매인 처지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릴없이 시간은 흐르고, 아버지 무덤 앞에 한바탕 곡도 하지 못한 채 흐르는 세월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살아있음이 구차하다고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해배가 되어도 자신은 영원히 천하의 죄인이라는 자책이 끊이지 않는다. 이세보는 세월이 흐를수록 죄는 쌓이고 그로 인한 마음의 병이 더해져 살 수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요컨대, 유배일기에는 부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과의 사별 정황이 서술되고 있다. 평상시와 같았다면 부고장을 다른 이들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뒤늦은 부고를 통해 가족의 죽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른 이를 통해 전해 듣고, 본인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의 사별이 누구에겐들 고통스럽지 않을 리 없다. 그러나 유배죄인의

23) 집뒤의토감호고완장도못호왓다호니듯는정니의우구멍도호고선친이임동시에정신이 혼호호시나집스롭다려즈로무러가로스되큰아회가희비호엿는나나죽은후의못칠짜인 죽반다시큰아회호기를기둘너덩호고장스 지니는날너관이나보게호여져로호여금유한 이덜되게호라호신고로아죽니몽유호기를기둘너영평호오라고 토감호왓다호니이갓튼 참경은전의업는일리로다임의지세지일의영별를못호고허가뱃귀이고봄이뜨오도록 영 케지호의일곡도못호니비록심상현형노지인이라도위아니불상호며참혹다호리요맛당 이죽엄죽호되죽도 아니호고한목숨이구척이스라잡아시셔가번혀호는거솔보니퇴우의되 를더호고병우의병을더호여만가지로 용납호며지탕헐도리가업소다.<신도일록> 1861년 1월 13일.

몸으로 듣게 되는 가족의 부고는, 유배객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심적 고통을 더하는 측면이 있다.

3. 사별 묘사에 두드러지는 유배객의 심리상태

1) 가족의 죽음에 대한 自責

가족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양반이나 천민이나, 유배객이거나 아니거나 차이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유배일기에 기록된 유배객의 심적 상황에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누구든 가족의 죽음 앞에서 회한(悔恨)이 없을 수 없다. 살아생전 미처 못다 해 준 많은 일들에 대한 후회의 감정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배객이 느끼는 이러한 심적 고통에는 가족의 죽음에 자신의 유배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느끼는 보다 절망적인 괴로움이 존재한다.

〈신도일록〉에는 이세보가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아버지의 발병은 ‘불초한 자식으로 인하여 크게 놀라고 상심하셔서’ 생긴 일이고, 결국 ‘자식의 연고로 정신이 어지럽혀지고 막혀서 위세(違世)하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런 망극한 불효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 ‘마땅히 죽을 만도 하되 죽지도 아니하고 한 목숨이 구차히 살아있다.’고 괴로워했다.

〈적소일기〉에서 김목행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 ‘내 남과 같이 세상살이를 잘하지 못하여 자주 귀양을 다니기에 집이 곤란하여 가세가 능히 병든 이를 구완하지 못하였다.’고 한탄하였다. 자신이 유배살이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아내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편, 동생의 죽음에 대해 김약행은 직접적으로 자책의 말을 하지는 않

았다. 그러나 일기 속에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아우가 능주(綾州)에서 가을 은사(恩赦)에 놓였으나[解配]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강진 읍내에 가 우거(寓居)하여 있기는 혹 내가 누가 아뢰어 놓으면 함께 돌아가고자 함이라. 을사 정월에 들어와 나를 보니 해파(海波=동생 默行) 떠났다가 만나매 슬프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드리워 세상이 크게 변함을 탄식하고 형제 각각 적소(謫所)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이 한가지라 위로하고 하룻밤을 나란히 누워 자니 편안하게 즐기는 정을 나그네집에서 편이 뜻밖이로되 떠나는 심회 새로이 놀랍고 정신이 아득하여 눈물을 금치 못할라. 나도 계속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니 나가서 평안히 있다가 곧 만남을 원하고 아우도 또한 너무 근심치 말고 곧 은전(恩典)을 만나 나오시기를 바라고 가노라하니 슬프고 근심스러워 가는 길을 바라보다가 재를 넘으며 모습이 없어지니 망연하여 마음이 지향이 없더라.(73-31)²⁴⁾

김약행은 진도 유배 기간 동안 두 번의 사면 기회가 있었다. 진도에 유배된 그 이듬해에 원자가 탄생하자 정조는 많은 유배객들을 사면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때 김약행은 제외되었다. 1784년에 다시 기회가 많았다. 가을에 세자가 책봉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또 사면이 있었으나 여기서도 제외되었다. 그런데 동생 김목행은 정조 3년 1779년 3월 홍양해 등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형보다 조금 앞서 이미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두

24) 아이능쥬로셔 7월 은사의아조노혀고향으로가디아니하고강진읍내가우거하여있기는 혹내가누가아뢰어놓으면함께돌아가고자함이라.을사정월에들어와나를보니해파(海波=동생默行)떠났다가만나매슬프고반가움을이기지못하여서로손을잡고눈물을드리워창상의변호를탄식하고형제각각적소의서상실호비회한가지라위로하고일야를년침하니담나호는정을역녀의피땀बाट기로떠나는심회새로이악연호야눈물을금티못흘러나도당이곳의이실거시아니나나가서평안이잇다가수이만나를원하고아오도또흔너모근심치말고수이은던을만나나오시기를바라고가노라하니초창호야가는길흘바라다가재를넘으며형영이업서디니망연호야무음이디향이업더라.(73-31)

번째 사면에서 놓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생 김목행은 형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요량으로 해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유배지 근처 강진 읍내에 머물고 있다가 죽음을 맞았다.

김약행은 사면된 아우가 자신의 유배지로 찾아왔을 때,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보내면서 유배생활의 고단함과 세월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었던 일이 있다. 헤어지면서 형은 아우에게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것은 아니니, 나가서 편히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하였고, 아우는 형에게 ‘은전을 만나 나오실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라.’고 하며 조만간 재회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 당시 김약행은 나이가 이미 칠순에 가까웠다. 동생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잦은 유배와 절도에서의 척박한 생활은 형제들을 점점 병들게 했고, 결국 이 만남이 형제의 마지막이 되어 버렸다. 만약 동생이 형의 해배를 기다리며 낯선 강진 땅에서 더 머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족들의 죽음에 자신의 유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유배객들은 대체로 알고 있었다. 부고가 도착했을 때 유배객들은 가늠 수 없는 사별의 괴로움과 자책으로 장문의 일기를 남기곤 하였다. 가족과의 사별 앞에서 유배인이 반복하는 ‘내 탓이다’라는 말은 안타깝지만 어느 면에서는 진실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장례에 참여하지 못한 여한(餘恨)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사별로 인한 고통은 초종장례(初終葬禮)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극대화되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여한을 남긴다.

조선시대 일기를 가까운 이와의 사별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핀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이문건의 〈목재일기〉, 최홍원의 〈역중일기〉, 권문해의 〈초간일기〉, 안정복家の 〈책력일기〉 등 일반 생활 일기와 일종의

거상일기(居喪日記), 고종일기(考終日記)라 할 수 있는 일기들에 대한 연구다.²⁵⁾ 이 논의들은 다소간에 차이는 있지만 이상의 일기들이 모두 부모님이나 스승의 상장례를 주자가례를 모범으로 하는 유교식 절차에 따라 성심을 다 해 치러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주자가례에 근거한 유교적 상장례는 조선 선비들이 매우 중시한 의례행위이다. 혈연과 종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이념이 죽음을 다루는 일련의 복잡한 절차마다 녹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전하는 조선 시대 일기 가운데 부모님이나 스승의 죽음이라는 일대 사건을 중심에 두고 죽음 직전의 상황(득병, 병세의 악화 등)과 사후의 상장례 절차 및 그 실행 과정에 대해 매우 엄정한 자세로 상세히 기록한 글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배일기에는 이러한 상장례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방관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유배객의 처지가 서술되어 있다. 김약행은 아내의 죽음 앞에 ‘장사에도 가 볼 길이 없어 두어 줄 제문을 지어 영연(靈筵) 앞에 읽으라 한들 글이 족히 슬픔을 다 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성복을 하려 하되 베를 살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주인의 집에서 울려 하면 말리고 민망히 여기고 해변이나 산중이나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울어야 하는 처지를 숨김없이 기록하였다. 동생의 죽음을 접했을 때는 ‘내 이곳에 있어 바다를 넘어 가 보지 못하고’, ‘형이 있다 하여도 해도(海島) 중 깊이 앉아 이는 체를 못하니 남이나 다르지 아니하다.’ 하였다. 이세보는 아버지의 부고를 접한 뒤, ‘병환이 극심하시되 약을 맛보아 한 번도 권하지 못하고, 상

25) 김경숙, 「18세기말 순암 안정복가의 상장례와 거상생활」, 『고문헌연구』 50, 한국고문서학회, 2017, 229~251쪽; 김윤정, 「18세기 사복師服의 성격과 실제-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연구원, 2013, 465~498쪽; 김윤정, 「16~17세기 예천권씨가의 친족관계와 의례생활-〈초간일기〉와 〈죽소부군일기〉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36, 국립민속박물관, 2015, 131~157쪽; 오용원, 「考終日記과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大山 李象靖의 〈考終時日記〉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113~147쪽; 이옥, 「최홍원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상제례 운영의 특징」,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연구원, 2019, 39~76쪽 등.

사에 임하매 또 능히 승안하여 영결치 못하고 …… 초종 염빈지절을 비록 집에 있어 정성을 다하여도 오히려 여한이 있건만 몸이 천애에 있어서 천고에 없는 정경을 당하였다.’며 괴로워한다. ‘이미 장사지일에 영별을 못하고 해가 바뀌고 봄이 또 오도록 신주 앞에서 일곡도 못하는’ 처지는 이세보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한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유배객은 가족의 죽음 앞에서 자책과 여한으로 인한 더 깊은 괴로움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이 괴로움은 유배라는 형벌이 발휘하였던 가장 가혹한 징벌적 측면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다.

4. 결론

내 殿庭에 內入하였다가 天恩을 입어 동대문으로 내어 보내시니, 떠메어 대궐문을 나올 때에 눈을 잠깐 떠 보니, 아들이 머리를 두드려 얼굴이 핏빛이 되고, 驚魂을 정하지 못하여 열 번이나 길에 엎더지며 길에 따라오고, 집의 아홉 살 먹은 딸이 어른과 같이 하늘에 축수하며 땅을 허위어 손가락에서 피가 땅에 흘렀다고 하니(〈북관노정록〉 1773년 7월)²⁶⁾

위 장면은 유의양의 유배일기 〈북관노정록〉의 한 장면이다. 아버지 유의양에게 유배형이 내려져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들과 어린 딸이 아버지와의 이별이라는 상황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아버지를 뒤따르며 넘어지고 생채기를 입는 어린 자식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족과 가문의 연대가 공고하고 중요했던 시대에, 가족과의 격리는 매우 혹독한 형벌일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다.

26) 최강현 역주, 『후송 유의양 유배기 북관노정록』, 신성출판사, 1999, 115쪽.

특히 유배형은 가까운 이의 죽음이라는 일대 사건 앞에서 그 징벌적 특성이 더욱 부각 된다. 유배는 유배객의 가까운 이들을 절망과 기다림 속에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고, 그들과의 영원한 이별 앞에서도 유배객들을 방관자로서 머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견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이다. 유배일기에는 가족과의 사별의 상황에서 유배객들을 괴롭힌 자책과 여한이라는 고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적소일기〉

〈신도일록〉

- 김경숙, 「18세기말 순암 안정복가의 상장례와 거상생활」, 『고문헌연구』 50, 한국고문서학회, 2017, 229~251쪽.
- 김윤정, 「18세기 사복師服의 성격과 실제-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연구원, 2013, 465~498쪽.
- 김윤정, 「16~17세기 예천권씨의 친족관계와 의례생활-〈초간일기〉와 〈죽소부군일기〉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36, 국립민속박물관, 2015, 131~157쪽
- 김윤희, 「이세보의 유배일기 신도일록에 수록된 시조의 연작성과 자기 위안(慰安)」,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017, 133~155쪽.
- 김정화, 「이세보 유배시조의 특질과 함의 - 『신도일록』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6, 한민족어문학회, 2017, 229~261쪽.
- 김호, 「18세기 후반 진도로 유배된 선화자 김약행의 삶과 고통」, 『문헌과 해석』 27, 문헌과 해석사, 2004, 79~103쪽.
- 김희동, 『다시 돌아본 선화자 김약행의 꿈』, 목민, 2014, 1~319쪽.
- 오용원, 「考終日記과 죽음을 맞는 한 선비의 日常-大山 李象靖의 〈考終時日記〉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113~147쪽.
- 윤인선, 「유배실기에 나타나는 유배 경험에 대한 글쓰기와 삶 살기-남해견문록과 적소일기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1-1,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385~411쪽.
- 이세보, 『李世輔時調集』,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5, 1~451쪽.
- 이승복, 「〈적소일기〉의 문학적 성격과 가치」,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91~114쪽.
- 이승복, 「유배체험의 형상화와 그 교육적 의미-조선후기 국문일기 자료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31~62쪽.
- 이승복, 「〈신도일록〉에 나타난 유배체험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40, 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49~189쪽.
- 이옥희, 「유배인의 기록을 통해 본 진도지역 문화」, 『남도민속연구』 19, 남도민속학회, 2009, 191~218쪽.

- 이옥희, 「조선후기 유배인과 유배지의 실상, 김약행의 〈적소일기〉연구」, 『국학 연구논총』 7, 태민국학연구원, 2011, 267~298쪽.
- 이옥, 「최홍원의 〈역중일기〉에 나타난 상제례 운영의 특징」,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연구원, 2019, 39~76쪽.
- 정우봉, 「조선후기 국문일기문학의 시간의식과 회상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95~227쪽.
- 정우봉, 「이세보의 국문 유배일기 신도일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41, 한국고전문학회, 2012, 411~446쪽.
-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1~303쪽.
- 지철호, 「조선전기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4, 1~132쪽.
- 진동혁,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논문집』 15, 단국대학교, 1981, 9~44쪽.
- 최강현 역주, 『후송 유의양 유배기 북관노정록』, 신성출판사, 1999, 1~402쪽.
-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 문화』 3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139~177쪽.
- 최인주, 「조선후기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1~70쪽.
- 한창덕, 「조선후기 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7, 1~157쪽.

ABSTRACT

Family bereavement and mental state of exiles as recorded
in the exile diaries

- Focusing on <Jeoksoilgi> and <Sindoilrok>*

Cho, Su-mi

When considering the political meaning behind punishment of exile, it is easy to overlook the fact that it was a destruction of daily life accompanied by the expulsion from one's place of residence and isolation from one's family. The punitive nature of exile in forcibly dispersing family members was the main source of the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among people in exiles and their famil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mental state of those in exile by focusing on the circumstances of family separation, especially during bereavement, by referring to exile diaries such as Kim Yak-haeng's <Jeoksoilgi> and Lee Se-bo's <Sindoilrok>.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when an exile received news about the death of his family he experienced self-blame and regret. This desperate pain of believing that his exile may have directly or indirectly contributed to the death of his family leads to self-blame. Further, being an exile who cannot properly participate in the funeral process creates an irreversible sadness.

Thus, the punitive nature of exile is significant in the major event of death in the family. The cruel punishment, of exile not only leads one's family to death while they wait in despair but also forces exiles to remain as bystanders eternal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This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why exile was chosen as the second most severe punishment right after the death penal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7S1A6A4A01021248).

Key Words

exile diary, bereavement, <Jeoksoilgi>, <Sindoilrok>, self-blame, irreversible sadness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